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말씀으로 위기를 극복하자

4학기 성경대학,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이번 주 개강

"모든 개혁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교회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교회 부설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1992년 3월에 개원하여 해마다 두 차례의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전국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 열 네번째 학기가 내일(9월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11월 16일까지 10주간 추석 연휴를 제외한 매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학기 세미나는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제 1교시(오후 2시~3시 30분)에는 이종윤 목사가 느헤미야서 연구를, 제 2교시(3시 50분~5시 20분)에는 현재의 위기와 희망있는 미래를 위한 교회의 대응 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룰 특강이 있게 된다.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강사나

강의에 참여하는 전국에서 오는 목회자들 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크고 작은 수고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미나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봉사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관을 한국 교회에 확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이번 학기에도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온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개설한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강좌도 이번 주 일제히 개강한다. 평일을 이용하여 신구약 전체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개설된 서울성경대학은 신구약 전체를 강좌과목으로 하여 학기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제 4학기 성경대학의 강좌 및 시간, 강좌, 개강일은 위의 <표>와 같다.

서울성경대학 제 4학기 교과과정표(9 - 12월)

	강좌	요일 · 시간	강사	개강일
서울 성경 대학	룻기	월요일 오전 11시	이성득 목사	9월 7일
	마태복음	월요일 오후 8시	김정현 목사	9월 7일
	요한서신	화요일 오전 6시	민영수 목사	9월 8일
	요나	화요일 오후 8시	이순환 목사	9월 8일
	욥기	목요일 오전 6시	이종윤 목사	9월 10일
음악 교실	음악이론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안진희 선생	9월 10일
	발성과 가창훈련	목요일 오후 8시 15분	배영준 집사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4학기 프로그램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9. 7.	느헤미야서 연구 이종윤 목사 (서울교회)	한국교회의 위기와 민족의 미래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9. 14.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교회와 목회 유경재 목사 (안동교회)
9. 21.		신앙의 위기와 21세기 교회 김영한 교수 (송실대)
9. 28.		도덕적 위기와 국가의 위기 노정선 교수 (연세대)
10. 12.		국방의 위기와 안보 송영대 회장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0. 19.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역할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10. 26.		경제적 위기와 교회의 사명 김세열 총장 (한남대)
11. 2.		정치적 위기와 통일 한국 나석호 변호사 (사랑종합법무법인)
11. 9.		사회적 위기와 교회의 역할 박영신 교수 (연세대)
11. 16.		교육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 이원설 이사장 (기독교대학연맹)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

내달 14일(수) - 16일(금) 개최기로

교회건축을 위한 바자가 10월 14일(수) - 16일(금) 3일간 우리 교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는 소장품을 비롯한 동산, 부동산 등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며, 농어촌 자매교회의 특산물들을 판매함으로써 자매교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취급품목은 기증품(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위탁상품 및 농어촌 자매교회의 특산물 등이며 바자 기간 중 여전도회 연합회에서는 옥탑층에서 식당도 운영할 예정이다.

바자에 출품된 모든 기증품(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현금 포함)

은 건축현금으로 바치게 되며 이 기간 중에 새롭게 건축현금을 작성할 수 있다.

바자를 위한 기증품 접수는 9월 13일(주일)부터 사무국에서 한다. 기증된 물품은 각 교구별로 교구점포에서 판매하며 귀금속, 예술품 등 특수상품은 특수상품점

포에서 판매하나 판매금액은 기증한 교구의 판매금액에 합산하기로 했다.

교회학교가 동참하기를 원할 때는 지도 교역자와 부장의 명의로 9월 27일(주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기사 4면)

이사야 강해

주님의 구원

이사야 10장 20 - 24절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과 피난하여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백성은 바로 남은 자(Remnant)와 회개한 사람(Renewal)입니다.

앗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돕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유다를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때린 몽둥이를 꺾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남은 자와 피난한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시거나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며 그 자손이 구원의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때리시고 버리신 적은 있으나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침략한 앗시리아가 돕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앗시리아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대항한 것이 오히려 죄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앗시리아가 돕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앗시리아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유다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패신당한 유다는 더 이상 앗시리아를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남은 자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들 이름을 스알야술(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이라고 붙였습니다(사 7:3). 유다 백성 전부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피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짧은 기도, 흘리는 눈물, 숨소리 하나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 돌아온 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는 우선 수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의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남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진자를 의지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제물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사 10:20 - 24)



이종운 목사

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불러주시기는 하지만 부름 받은 사람 중에 효과적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건을 지키고 남은 자로 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앗시리아도 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남은 자를 두셨음과(왕상 19:17 - 18) 남은 자는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암 4:11)과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결된 자입니다(사 30:17, 암 3:12).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찾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절개와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사 6:13, 17:6). 남은 자는 흠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사람이 되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처럼 남은 자는 다시 새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겔 37장).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게 됩니다(미

7:18).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슥 8:11 - 15). 남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 이

방 나라의 고레스 왕과 인간을 살리신 고난의 종인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남은 자의 대명사이고 메시아가 살려낸 백성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남은 자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남은 자와 돌아온 자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남은 자가 됩니다.

3. 남은 자가 받을 복

남은 자는 생명의 복을 받게 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며 더불어 물질적 축복도 받게 됩니다.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앗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24절).

앗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계속적으로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례길에서

연이은 시련 중에도

김미경(집사, 3교구)

먼저 여러가지 어려움을 통해 저와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시자 고난의 유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3년 간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의 일들을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 김기수 성도가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권투선수이셨고 우리 나라 초대 세계챔피언이셨지요. 아버님은 평생 우상을 섬기시던 분이셨으나 간암선고를 받으신 후 결국 주님을 영접하시고 작년 6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받으시는 중에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이정수 집사)을 우리 가정에 복음의 씨앗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남편은 저희 가정의 구원을 위해 너무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한번도 말이나 행동으로 강요함 없이 그야말로 간절한 기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30년을 넘게 우상을 섬기던 우리 가정에 그 기도는 허사일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족은 물론 일가 친척까지 만나면 인사가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단시간에 이루어진 일이라 꿈같지만 한 사실 앞에서 인간은 기도해 놓고도 믿지 못하고, 기도한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

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흘러 지나가는 말로 기도한 것, 심지어 생각한 것조차 다 알고 계신 분임을 체험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아버님의 행언할 수 없는 평안한 임종을 지켜보면서 저의 새 동생들은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정하자 성도)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실감나게 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는 어머님 생활의 최우선의 일과입니다. 첫 사랑의 뜨거움을 간직하신 채 한 번도 거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봉사할 곳을 찾으시다가 새가죽부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아버님을 먼저 보내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제가 유방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잇단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좌절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놀랍게도 "초기에 발견하게 해 주셨으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하셨습니다.

주사맞는 일조차 두려워하던 겁쟁이인 저도 그 무서운 항암치료까지 주변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평안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었고 수술하는 순간에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으로 기뻐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주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한 일이 없어 부끄럽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비록 젊지만 이제 제겐 죽음이 막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조금이나마 덜 부끄럽도록 여생을 살려 합니다.

시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복을 주셔서 환란을 감사로 바꾸시는 주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기는 모조록 그 어려움을 감사의 기도로 바꾸시고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로 예비하시고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순례자 컬럼

보람있는 인생

샅쫂운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은 보상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일이 축복이나 기쁨이 되기 보다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 뿐이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에게 되돌려준 청지기에게 바깥 어두운 곳에 나자 이를 갈라고 하신 저주의 말씀은 일의 의미도 보람도 모르고 안일주의 기회주의 무사주의에 빠져 눈에 보이는 명분에 매어 살고 있는 이들에게 주신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와 멸시와 고통과 심지어 죽음에까지 던져진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찬미와 감사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충성과 희생을 더할수록 일의 보람과 가치는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자.

누가 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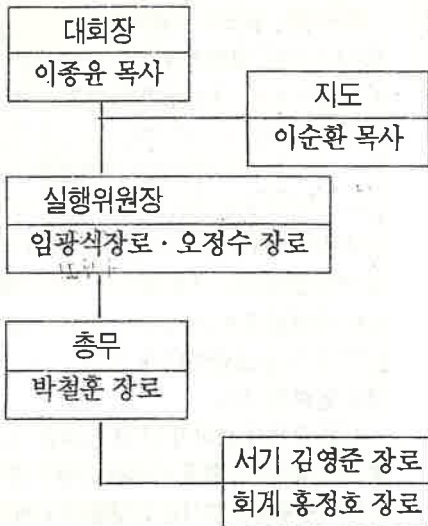
제 14학기 목회자세미나에서 수고하실 분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9월 7일(월)부터 10주간 계속될 14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봉사 장소로 직접 오시면 된다.

문의는 한국교회갱신연구원 ☎ 517-7651.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한나, 에스더 회원
집꾸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성도 여덟 분
인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주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 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돕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바자 행사 조직



- **기획** (기획, 진행, 기록): 이웅선 하영수 황정옥 맹선재
- **관리** (접수, 보관, 분류, 가격책정, 배정): 최중시 서문석 나종영 오승민 오형철 오유식 김규태 이계홍 장양일 이영서 유형석 서준식 김성준 송인권 김관홍 한정아 최재춘 김상옥 오영숙 김영희 김정란 이부자 김영식 이성애 박연순 최금자 이안순
- **시설** (시설, 각종 표시, 판매대 설치·철수): 노문환 박두호 김형택 안의경 유중관 이상호 이승우 홍정선 각 남선교회 회장
- **판매** (판매원품 분류, 가격 책정, 가격표 부착, 판매대금 수납, 복장 준비): 정병무 김정희 임훈규 신용식 오광환 우지원 이태상 박정선 김숙자 김영연 유명석 허경자 각 여전교회 회장
- **섭외** (농어촌 자매교회 특산물 섭외, 외부 업체 섭외): 김태기 왕경래 윤찬오 백수남 한길동 이관규 박정순 손재겸 장낙희
- **홍보** (사진 촬영 및 보관, 홍보물 제작 배포, 포스터·현수막 제작, 초청장 발송): 이영기 노송성 허희철 조정식 김인수 박두영 이완형 최형렬 정동호
- **재정** (회계 및 결산, 명부작성): 김광신 김중복 김영주 이병생 최용걸 원복순
- **점포장**: 정병무 김상철 민순구 김영준 윤봉준 이남호 김대호 성준경

신간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Ⅳ(제 12 - 16장)



로마서Ⅳ / 344면 / 값 8,000원

이종윤 목사의 로마서강해 네번째 책이 필그림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의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1학기에서 13학기까지 이종윤 목사가 강해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이번

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 제 12 - 16장까지의 강해가 수록된 것으로 칭의의 주제를 다룬 '로마서Ⅰ' (제 1 - 4장)과 성화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Ⅱ' (제 5 - 8장), 유대인의 문제를 다룬 '로마서Ⅲ'에 이어 나온 것이다.

'성경의 다이아몬드'로 불리우는 로마서를 강해하면서 저자는 서문에 "탄광에서 금을 캐는 광부처럼 깊이 파면 팔수록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며 "복음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철저한 변증으로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루어 기독교 역사를 통해 그 영향력이 인정된 로마서는 그 자체가 신학적 해설서"라고 밝히고 있다.

새로 간행된 '로마서Ⅳ'을 비롯하여 이종윤 목사의 저서는 교회 2층 테이프포급소에 서구입할 수 있으며 생명의 말씀사가 총판하여 전국 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8일(화) 비전2020운동 위원회 소집, 10일(목) 종로경찰서 특강, 11일(금) 기독교교도소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이종윤 목사의 이번 학기(9 - 11월) 강의는 다음과 같다.

- 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장신대학원 강의
- 화: OCU(기독교교회) 성경공부 인도
- 수: CBMC(기독교실업인회) 성경공부 인도
- 목: 아담반 강의

◇ 고등부 지휘에 김복수 집사(5교구 군포 수원다락방), 초등부 지휘에 강민희 집사(시온찬양대 지휘)가 새로 임명되었다.

◇ 최임수·노인수 집사는 강남구 도곡동 삼익아파트로 이사했다(☎ 3462 - 2522)

◇ 오늘 점심식사는 김상철 장로·최원자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대학부에서는 방학 기간 동안 매주 금요일 십야예배 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철야기도회를 가졌다. 새 학기를 맞아 그간의 철야기도회를 마감하면서 5일(토) 오후 2시 청계산기도원에서 기도회를 가졌다. 9월부터는 새로운 조를 편성하여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기독교방송(HLKY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제 14학기 목회신학세미나를 위해
2. 제 4학기 서울성경대학을 위해
3. 건축을 위한 파자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